



조덕영 / 본회 이사  
(주) 한독 회장

## 戰鬪 社會

요즘 犯罪와 의 戰爭이 한창이지만 우리 社會에 戰鬪的인 狀況은 이것만이 아니다. 每日 겪는 交通戰爭이 그렇고 每年 봄철이면 치루는 賃鬪, 겨울이면 겪는 入試戰爭 등 모두가 살벌한 戰爭을 방불케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사업관계상 가까운 日本이나 유럽, 미국 등지를 자주 가게 되지만 우리나라처럼 살벌한 霧圍氣는 아닌 것 같은데 그 理由가 뭘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어느 교수는 韓國社會의 갈등구조라는 책에서 韓國社會는 急速한 産業化가 빚은 후유증으로 各種 갈등이 가득찬 戰鬪社會라고 指摘하였는데 매우 共感하는 主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産業化 過程을 일찍부터 겪은 先進國의 例를 돌아 보거나 우리와 비슷한 時代에 急速한 産業化의 길을 걷고 있는 인근 몇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産業化의 후유증이란 한 가지 理由만으로 오늘날 우리 社會가 겪고 있는 戰鬪的 霧圍氣를 充分히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筆者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는 남들이 겪지 않은 두가지 커다란

經驗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는 6.25 난리이고 다른 하나는 4.19以後 반복된 政變이다. 이 두가지 不幸한 過去는 歷史속으로 그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社會에 不信風潮라는 심각한 퇴적물을 남기고 간 것이다.

6.25戰爭은 同族間의 不信은 말할 것도 없고 戰爭中 또 그뒤 피난 시절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良心이라든가, 체면, 예절따위는 잊어버리고 相互不信, 증상모략, 脫法, 새치기 등 惡習의 온상이 되었고 그후 4.19革命에 이은 3, 4, 5 共和國으로의 변천 과정을 보면 經濟的으로는 括目할 만한 發展을 한 것이 事實이지만 한편 正統性에 대한 不信을 비롯해서 政治와 政府에 대한 不信, 잘사는 사람에 대한 不信, 教授와 學生間, 企業家와 勤勞者間, 심지어 父母와 자식간의 不信현상 등, 國民所得 5천불을 얻기 위한 희생치고는 너무나 비싼 代價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價値觀의 混亂은 그동안 持續되온 經濟成長의 速度에 까지 制動을 걸고 있고 이제는 日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

른다는 危機感마저 느끼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심각한 自己反省과 思考의 大轉換이 必要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企業人の 한 사람으로서 그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늘날 戰鬪社會 霧圍氣의 原因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결국 그 解答은 政治의 安定과 政府政策에 대한 信賴性 회복과 우리 社會에 뿌리깊은 不信風潮를 除去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시급한 課題라는 데는 異見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信賴의 霧圍氣가 자연스레 擴散되어 社會 저번까지 스며들도록 한다면 오늘의 戰鬪社會란 汚名은 씻어 버릴 수 있겠는데 그럴려면 우리 國民 構成員各者가 各己 自己本分 지키기와 過慾버리기를 몸으로 實踐해야 할 것이다.

解放이후 오로지 잘 살아 보자는 目標 하나를 위하여 앞뒤를 가리지 않고 過速으로 달려온 우리들, 政策當局者, 企業人, 그리고 勤勞者들은 이제 速度를 줄이고 車線과 規則을 지켜가면서 安全하게 走行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